

「考古美術」발간을 도와주신 분들

鄭 永 鎬

1. 버르고 있던 창간호

1959년 봄에 충청남도 瑞山郡 雲山面 講堂里에서 백제시대의 마애삼존불이 발견 조사되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였다. 이 불상이 瑞山磨崖三尊佛像으로서 현재 국보 제84호로 지정·보존되고 있는 귀중한 백제불상이다. 이 삼존불상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까지도 알려지게 되어 당시 일본에서 간행중이던 세계미술전집 한국편 권두에 이 불상의 사진이 게재되었던 것이다.

현지 조사를 마치고 온 황수영선생께서 이 귀중한 백제불상을 널리 알릴 만한 이 방면의 학술지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때 필자는 숙명여자고등학교에 역사교사로 봉직하고 있었는데 선생께서 주신 필름을 현상하고 사진을 인화하고 보니 정말로 놀라운 삼존불상이었다. 이후에도 이곳저곳을 답사하며 많은 새로운 유적·유물을 조사하게 되었는데 이때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으나 역시 이 방면의 학술지가 없어 아쉬울 때가 많았었다.

하루는 선생께서 부르시기에 퇴근길에 안암동의 택으로 찾아가 보았더니 선생께서 말씀이 “...현재 우리의 형편으로는 활자화된 학술지의 간행이 어려우며 同好人の 모임으로 油印物이라도 작은 책자를 마련해 보려는데 정선생도 뜻을 함께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는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데 원고 수합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비용의 문제가 더욱 컸었던 것이다. 해가 지나고 4·19가 있는 후 이 방면 동호인의 모임은 「고고미술동인회」라는 명칭으로 1960년 8월 15일, 제2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會誌 『考古美術』의 첫선을 보이면서 비롯되었다.

창간사에서 밝힌듯이 몇몇 동인이 모여 그때그때 조사한 학술적인 새로운 유적과 유물에 대한 기록을 남겨서 이 방면 연구의 자료로 보존하자는 뜻에서 시작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考古美術」이 발간되었으므로, 제1권제1호 창간호를 보면 진홍섭(榮州 石浦里 四面佛石), 황수영(高麗銀入絲青銅佛器의 新例), 전형필(慶州出土 博佛 如來三尊像), 최순우(필라델피아美術館 新收品 狗子圖), 윤무병(道岬寺 解脫門 上樑文), 홍사준(全北 益山出土 六朝鏡), 정영호(原州의 寺蹟: 興法·法泉·居頓), 김원룡(慶南地方의 支石墓 數例) 등 8명의 집필자가 모두 새 자료를 소개하고 있으며 이렇듯 새로운 유적·유물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당초의 목적은 그대로 실천되어 100호까지의 油印物은 물론이고 활자화한 101호부터 현재의 187호가 모두 새로운 자료만을 게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또한 창간사에서 다짐하였던 “장차는 이 월간자료지가 油印에서 活印으로, 팜프렛에서 완전한

월간지로 발전해 나가게 될 것을 기약한다”는 실천도 보게 되어 창간이후 매달 油印物로 발행한 「考古美術」은 1968년 11월 마침내 통권100호를 내게 되었으며 지령100호를 기념하여 「고고미술동인회」는 「한국미술사학회」로 발족하게 되었었다. 따라서 「考古美術」을 학회지로 하되 101호부터는季刊으로 하여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철의 4권을 발행하며 인쇄본으로 하게 되었던 것이니 학회발족 후 1969년부터 1990년까지 약20여년간에 80여권의 인쇄본 「考古美術」을 발간함으로써 오늘의 지령188호를 보게 된 것이다.

초창기 「고고미술동인회」의 모임은 임시연락소를 국립박물관 연구과로 정하고 있었으며 「考古美術」이란 題字는 당시 연구과장이셨던 김원룡박사께서 친서한 것이었다.

이후 1961년 정초에 종로4가의 澗松 全鑿彌선생택에 세배를 드리러 갔을 때의 일이다. 시간이 좀 지나자 김상기박사님을 비롯하여 이상백, 이홍직, 황수영, 진홍섭, 김원룡선생님들께서 모두 모여서 새해의 축배를 올리게 되었는데 필자도 자리에 함께 하게 되었었다. 여러잔의 술이 가고 오고 하던 중 澗松께서 잠시 좌중에 양해를 구하시더니 나의 손목을 잡고 번쩍 올리시면서 “오늘 우리 「고고미술동인회」의 간사를 임명합니다”라고 하시면서 여러 어른들의 의향을 물으셨으며 이때 자리의 일동은 박수로써 찬성하여 필자는 뜻하지 않던 「고고미술동인회」의 간사의 命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2. 『考古美術』 題字와 澗松

이렇게 하여 1961년 정초에 나를 동인회의 간사로 임명하였으니 동인회의 연락처는 자연히 나의 집주소인 종암동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여러 선생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있었던 「考古美術」이란 題字에 대해서는 즉석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숙제로 남기게 되었다. 새해 제2권 제1호부터는 좀 멋있고 유서깊은 옛 글자로 集字하여 보자는 이야기가 나와서 이 작업을 의논한 결과 澗松선생께서 해주시기로 하였다.

겨울방학중이지만 학교에 나가서 잡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澗松께서 전화를 주셨다. 나의 집으로 전화를 하셨는데 학교에 출근했다고 하니 학교로 다시 전화하신 것이다. “나왔어요, 나왔어! 정선생 빨리 와!” 전화의 첫 말씀이셨다. 이 이야기는 당시 우리 동인들 사이에 모두 잘 알게 되었던 일이지만 「考古美術」의 題字를 맡으신 선생께서 마침내 어제밤에 글자를 찾으셨다는데, 찾기는 찾으셨으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았다. 전화의 말씀이 꽤 흥분하신 것 같았고 “드디어 찾아냈다”고 하신 것으로 보아 集字하시기에 시간이 오래 걸리신 것 같이 느껴졌었다.

그때 나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였으므로 학교에서 종로4가까지는 불과 몇분사이에 달려갈 수 있었다. 카메라를 메고 좁은 골목을 들어가서 낮은 중문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선생님을 뵈게 되었는데 희색이 만면하여 나오시면서 첫말씀이 “바로 이 阮堂體에서 뿔느라고 혼났어!” 하시면서 墨書本 한책을 보여 주셨다. 그것은 선생의 秘藏本중 秋史 金正喜의 수제자가 묵서한 手錄인데

이 기록에서 네글자를 찾아내셨다는 것이다. 이 수록은 오래된 것이어서 이미 종이도 약해졌고 군데군데 조각으로 된 얇은 종이를 누더기같이 덧붙여 놓은 것이었는데 金秋史의 글씨와 같은 체로서 아름다운 楷字로 작게 쓴 글씨가 수십장되었다.

선생께서 찾아놓으신 네글자 가운데 「考, 古, 美」字는 몇글자씩 되어서 장 사이사이에 표적을 끼워놓은 것이 많았는데 「術」字만은 딱 한자 뿐이었다. 카메라로 여러 글자를 복사하고 난 뒤 선생님께 “「術」字는 한자뿐입니까?” 하고 여쭙었더니 “말마시오, 그 「術」字가 보통 글자가 아니요. 이 「術」字 때문에 오늘 새벽3시반까지 혼이 났어요”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선생님의 앞에 정종잔을 올리며 들려주시는 「考古美術 집자비화」에 귀를 기울였었는데 이후 이 고고미술 제자가 표지에 인쇄될 때마다 당시 澗松께서 집자하시던 새벽 3시반의 비화가 늘 꽃피워지고 그때마다 선생님을 추모하곤 하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考古美術」題字가 바로 1961년 1월에 澗松께서 집자하여 주신 것이며 이 네글자에 담긴 비화가 바로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한밤중에 이 완당체의 목서수록을 몇번이고 뒤적거렸는데 「考古美」까지 세글자는 몇자씩이나 찾았으나 「術」字만은 찾가지지가 않아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그래도 미련을 놓지 못하고 찾으시다가 새벽 3시반쯤이나 되었는지 시장기도 들고하여 혼자 부엌에 나가보시니 마침 정종을 따놓은 것이 있어서 병채로 한모금 드시고 목을 축이신 뒤에 산뜻한 기분으로 방에 들어오셔서 또한번 처음부터 檢字를 하여 보았더니 이때까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術」字가 딱 한자 드디어 찾아졌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깊은 밤중에 혼자 환호를 올리시면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옛말이 또한번 되새겨지기도 하셨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考古美術」題字가 마련되었으며 당장에 1961년 1월호부터 이 완당체로 集字한 題字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정초부터 서둘러서 15일에는 제2권 제1호를 내야 되겠기에 원고를 수합·정리하는데 불교미술이나 고고학 관계자료는 비교적 원고화되어 모이는 것이 쉬운 편이었는데 도자기나 회화류는 꽤 힘든 원고였다. 필자만 하더라도 塔·像이나 佛具등 불교적인 조형미술품을 논하는 원고는 每號에 정리하여 게재하였었는데 도자기·회화등은 전공이 아니어서 집필이 어려웠으며 다른 집필자들도 대개는 그러하였다. 이러한 가운데서 매호에 도자기나 회화의 논문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으니 이것은 오로지 澗松선생께서 집필하여 주신 은덕이었던 것이다.

3. 同人들의 모임과 基金 확보

「考古美術」은 매달 한번씩 발행하는 것이어서 반드시 한달에 한번씩은 편집회의를 열게 되었다. 대개는 월초에 원고를 수합하여 15~20일경에 발행하였는데 澗松선생께서 병환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의례히 종로4가 골목안 澗松宅에서 편집을 하였었다.

평소에도 연락을 드리기는 하였지만 동인회의 간사를 맡고, 특히 「考古美術」을 발행하게 될

때는 몇편의 모여진 원고를 들고 선생님들을 모시고 간송택을 찾았는데 선생택에 들어설 때마다 무언가 모자라는 원고몽치를 아쉽게 생각하고 또 막연한 편집에 자신이 없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단 선생님을 뵙고 원고의 배열과 고고미술 뉴—스의 정리등을 진행하노라면 흥미가 돋구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어느결에 편집이 끝나게 되었는데, 앞에서도 말하였듯이 도자기나 회화류의 원고는 선생택에 가면 언제나 준비해놓고 계셨었다. 그리고 뉴—스등도 치밀하게 모아 주셨으며 각 원고의 내용 검토에 있어서는 글자 한자까지도 면밀히 살펴서서 간사를 맡은 나로서는 송구스러울 만큼 자상스럽게 이끌어 주셨던 생각이 난다.

편집이 끝나 석양배를 기울일 때도 방금 끝낸 「考古美術」편집의 내용을 화제로 꽃피우셨고 유물 하나하나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셨는데 때로는 年代의 추정과 각 유물의 출처문제에 대해서도 말씀이 많으셨다. 이를테면 선생께서 주장하고 계신 속칭 居昌佛像이라 일컫는 것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거창의 「고개남」에서 출토된 것이 분명하다는데…”라고 하셨는데 후일 이 불상의 출처는 거창군내의 「고견암」이라는 작은 암자 주변에서 나온 것으로 필자에 의하여 밝혀졌다. 이 암자는 현재 읍내에서 50리밖에 위치해 있는데 출토지점까지 증언해주는 古老들이 계시다. 그리고 괴산 浮屠라 일컫는 석조부도도 원위치가 괴산이라는 것만 말씀하셨는데 선생께서 작고하신 후 충청북도 槐山郡 七星面 外沙里가 원위치임이 또한 필자에 의하여 밝혀진 바 있다.

한편 풍경화등, 이를테면 연못가에 물오리떼가 몰려다니고 휘늘어진 버들가지사이로 놀잇배가 지나가는 등의 정경은 반드시 교외로 나가서 그러한 풍경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서울 장안에서도 이러한 정경을 한폭의 그림에 담을 수 있었던 곳이 있었다고 하셨다. 그곳은 현재 을지로2가의 청계천쪽이 되는데 일제침략기 중국인들 손에 넘어가 6·25동란 직후까지도 거대한 중국식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바로 이곳에 들어가면 큰 연못이 있어 물이 흐르고 수양버들이 있으며 새와 짐승들이 뛰놀고 하였으므로 마치 교외로 나간 것같은 느낌을 갖게 되는 곳이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옛날에 畫員들이 이곳에 몰려들어 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라도 손쉽게 교외의 풍경을 그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직도 나의 머리에 남아있다. 그때 선생께서는 “나도 누군가가 이야기해주는 것을 귀담아 들어 그곳을 찾아가 보았는데 과연 맞는 이야기였다”고 하시고 “생각나는 내용을 정리하여 기록으로 남겨놓아야 하겠어” 하시면서 재미있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다시 옮겨지지도 않았고 기록화되지도 않았다. 아마도 병환이 아니셨던들 내가 선생께 졸라서 「考古美術」에라도 기록을 꼭 남겼었을 것이다. 그러나 애석함이란 이런 일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1962년 2월 선생께서 他界하신 뒤에는 편집회나 동인들의 모임을 가질 일정한 장소가 없었다. 간사였던 필자가 원고를 수합하여 어느 선생님택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편집이 이루어지며 책자를 발행하는 날에는 동인중의 한집에 모여 사진을 붙이고 발송준비까지 서둘고 하였었는데 이때에는 10명 내외의 동인들이 모여 마치 동인 총회와도 같은 모임이 되었다. 한장한장의 책장을 넘기며 교정하는 동인이 있는가 하면 사진에 풀칠하는 동인이 있으며 풀칠한 사진을 책에 붙이는 동인들이 있어 2~3시간의 작업시간이 끝나면 의례히 그 맥에서 한잔을 겸한 저녁식사까지 하게

되었었다. 이렇게 하여 100호까지 발행하였으니 이러한 모임을 가진 것은 모든 동인이 함께 한 일이었으나 이 가운데서는 10여차례나 모임이 있었던 同人宅도 있었다. 동인들의 모임이었다 하지만 사실은 손님을 치루는 일이었던 것이니 지금와서 생각해 보면 매달 있었던 이러한 일이 그리 쉬운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발행비 문제에 있어서 처음에는 5천원이었고 후에는 3만원으로 증액되었는데 매달 시주를 걷어야 되었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간사로서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었다. 때로는 돈을 받으러 갔을 때 거만스러운 태도와 표정에 울화가 치밀기도 하였으나 이 돈을 얻지 않으면 「考古美術」이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꼭 참고 수급한 때도 여러번 있었다. 이러한 일이 거듭되는 가운데 언젠가는 우리 「考古美術」이 독립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기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몇 선생님께 말씀드린 바 있었다. 이러한 건의가 실천에 옮겨지게 된 것이 기금 확보의 노력이었던 것이다.

「考古美術」이 油印物이었으므로 매월 한장소에서 하기가 어려웠는데 당시 한국은행의 증권부장으로 계셨던 張衡植 선생님의 알선으로 한국은행 출판부에서 전담해 줄 것을 약속받아 100호까지는 물론, 고고미술 자료집까지 여러권을 이곳에서 제작한 바 있다. 우리는 날 짜를 어겨서는 안되기에 장형식선생님께 간청하면 장선생님께서서는 출판부에 독촉하여 발행기일을 지키도록 해주셨는데 프린트사 여러분에게 매월 써비스하는 일은 장선생님께서 도맡아 하셨으므로 그때 많은 비용을 쓰셨던 것으로 안다.

기금문제로 걱정하고 있을 때 황수영선생님께서 전화를 주셨다. 고향친구인 黃潤克 선생이 기금을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때 장형식선생 내외분께서 직접 황윤극선생을 만나 「考古美術」의 기금을 받아 전해주셨는데 수표를 받고 놀란 것은 거금 30만원이란 큰 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考古美術」의 발행비가 5천원이므로 3만원정도의 수표로 알고 받았는데 이것이 30만원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이 수표를 들고 황수영선생님과 함께 30만원의 숫자를 여러번 확인하였던 생각이 난다. 나로서는 이렇듯 거액의 수표를 만져보기는 처음이었다.

이 30만원이 기초가 되어 이를 기금으로 하여 우리의 자금을 늘려준 분이 장형식선생님이며 실무를 맡으신 분이 장선생님의 사촌동생이신 장재식선생이시다. 우리의 기금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갔으며 증액되는 통장을 보면서 여러 선생님과 기뻐하면서 「考古美術」통권100호를 발행함과 동시에 새로이 출발한 「한국미술사학회」에 기금의 통장을 넘겨주게 되었던 것이다.